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으며

말씀 회복 통해 참 성전 세우는 교회로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그리고 청년 세우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 구체적인 변화들이 눈에 뜨인다. 이 변화들은 '말씀의 회복'으로 요약된다.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기,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그리고 청년 세우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는 충현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불어넣고 있다. 이에 44주년을 맞으면서 충현의 방주가 향해하는 꾀대들을 정리한다.



▲ 교회는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으며 또 한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모이는 데 열심하며 찬양이 살아난 예배, 주는 교회로의 지향,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으로 요약되어지는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머지 않아 역동성이 넘치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로운 성찬식의 모습이다.

예배와 교육

김성관 목사의 부임 이후, 예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말씀과 찬송이다. 이 변화는 순간적인 만족과 감동을 위해 설득력있고 매력적인 세상의 이야기들을 말씀 선포에 섞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조에 공감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의 뜻과 교묘히 섞는 현대 기독교의 풍조에서 벗어나 순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찬송도 변하고 있다. 이 역시 '찬송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김성관 목사는 기회가 되

는 대로 찬송의 멜로디와 작곡자의 의도, 가사에 대한 세밀한 해석을 덧붙인다. 이 찬송의 변화는 주일예배뿐 아니라,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 금요일집회 등 거의 전 예배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종 충현의 전 성도는 거대한 찬양대로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주일예배 및 새벽기도회와 금요일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강조는 각 교회 학교의 강단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회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일꾼 만들기'에서 '말씀을

통한 성도 세우기'로 새롭게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가속되어갈 전망이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구제

김성관 목사는 부임 직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와 구제'를 강조해왔다. 특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구제를 통한 봉사'와 그리스도인이 배울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인 복음 전파와 선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7천 명의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충현의 온 성도는 이 소중한 사명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반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 봉사

와 구제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해가야 하겠다.

청년 세우기

대학·청년들을 아끼고 세우는 일에 온 충현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 8월 24일 주일부터 시작한 젊은이를 위한 5부예배는 지난 31일 주일에도 1천 4백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졌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숙연한 감동이 예배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엠소리(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설교제목으로 '변명하지 않는 정직한 신앙인

이 될 것'을 당부한 김성관 목사의 설교는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은혜 중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전 교회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매 예배시마다 청년들을 세워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관 목사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기 위해 온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힘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충현의 성도들은 교회의 허리와도 같은 청년들이 빠르게 자라날 때, 교회가 빠르게 세워짐을 점차 깊이 인식해 가고 있다.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지원과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찬양의 밤

모차르트의 CREDO MASS in C '신앙고백'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국내 최초로 연주

오늘 찬양예배는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찬양의 밤'으로 드린다. 합창은 아멘찬양대(대장 이하영 장로, 지휘 이수철, 반주 김남옥)가 담당하며, 충현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한편, 곡중 독창은 소프라노 김은경, 알토 박연숙, 테너 차문수, 베이스 강임구 등이 맡았다.

이번 연주는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이라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초연되는 곡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 열정이 고조되면서 신앙 상태도 성숙되어가던 1776년 11월에 작곡된 것으로서, 총 6곡

(자비를 구하는 기도, 대영광송, 신앙고백-크레도, 거룩하시다, 복있도다, 할렐루야 어런양)으로 구성된다. 아멘찬양대는 이 생소한 곡의 연주를 위해 무려 두달 반 이상을 열심히 연습해 왔고, 국내에 없는 오케스트라용 악보는 독일에 주문 인쇄하여 들여오기도 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된 이번 찬양의 밤에 충현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노고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예배 순서 중 광고 및 교제시간 안하기로

이번 주부터는 모든 공예배 시간 중 광고, 교제 및 새가족 환영의 순서가 빠지게 된다. 이는 예배 중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 중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모아 경배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교회 소식은 주보와 주간충

현을 참고하면서 스스로 숙지할 수 있도록 각자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새가족 환영의 순서가 빠지게 된 관계로 새가족을 인도한 분들은 그들을 직접 새가족부로 인도하여 여색함없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무익하게 된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3)

(이사야 5:5-6, 24-30)

〈지난주 설교에 이어〉

1. 기회를 잃은 변론
2. 심판을 받아야 할 들포도

3. 심판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사 5:5) 하시면서 심판하실 내용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까.

(1) 흉년으로 심판하십니다(5-6절)

하나님이 들 포도를 맺은 유다를 흉년으로 심판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십니까.

① 보호자를 없애 버리십니다.

“울타리를 건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은 보호자를 없애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포도원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아서 개, 돼지, 소나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헐어 버리니까 소, 말, 개구장자들이 저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를 없애 버리시면 유다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모양이 될 것입니다.

② 농장 돌보는 자를 없애 하십니다.

포도열매를 맺게 하려면 필요없는 가지는 잘라 버려야 하고 뿌리에는 좋은 거름을 주고 지구 북을 돌우어 주어야 하는데,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돌우어 주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은 돌보아 주는 자를 없애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열매맺을 가지는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만 쭉쭉 자라고 또 뿌리에 북을 돌우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 돼지가 들어와 마구 뛰어나니 뿌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③ 질려와 형극을 무성하게 하십니다.

질려와 형극은 가시나무의 일종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서 사람보다 두 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 옆에 질려와 같은 날 때에는 별것 아니라고 웃어 넘겨도 이것이 석 달이 가기 전에 열 배나 커서 포도나무를 다 덮어 버립니다. 그런데 질려와 포도나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대일로 싸운다면 포도나무는 천 번이면 천 번 모두 지고 맙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질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농부가 포도나무의 편을 들어 주기 때문에 질려를 이기고 열매맺은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결코 자기 혼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배후에 농부가 있어서 질려가 자라면 농부가 낫을 들고 와서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움을 한다면 교회는 천 번이면 천 번 모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편을 들어 주시므로 교회는 세상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④ 가뭄을 보내십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총회나 노회가 모이고 또 헌신예배나 음악예배도 드리지만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여서 떠들기는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그쳤으니 얼마를 지나면 교회와 교인은 씨도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흔들려 심판하십니다(24-25절)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같이”란 말은 불이 나무에 붙는데 처음에는 잎이 타고 마지막에는 그루터기가 타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듯이 남은 것이 없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었고”라는 말씀은 숨어 있던 것까지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산들은 진동한다”는 말씀의 뜻은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것같은 정권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니 여지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에 산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의 시체가 장례해 줄 사람이 없어 거리에서 분토 같이 밟히고 썩게 됩니다.

(3)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26-30절)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심판인 전쟁을 주십니다. 이사야 5장에 들포도를 맺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기는 전쟁이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고 망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심판으로 주시는 전쟁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① 하나님이 적군의 편이 되어 이기게 하십니다.

가. 하나님께서 적군을 위하여 기를 세워 주십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한참 싸우다가 한 쪽이 다른 쪽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기를 세웁니다. 아군이 원수의 진영에 쫓힌 것을 보면 싸우던 아군의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원수의 진영으로 단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적군의 깃발이 아군의 요새에 쫓힌 것이 보인다면 그때는 아군은 그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자를 없애 버리시면 유다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모양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움을 한다면 교회는 천 번이면 천 번 모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편을 들어 주시므로 교회는 세상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 먼 나라의 강한 군대를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그들의 기를 세워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내 편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를 세우셨답니다. 즉 원수로 하여금 마음 놓고 우리 땅을 점령해 들어오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적군의 병사들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먼 길을 달려 왔어도 한 사람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빨리 쳐들어 오라고 깃발을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몸에 건강을 주시고 많은 무기와 장비를 운반해 오는데 조금도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적군의 횡포가 잔인합니다.

원수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는 제멋대로 병거 바퀴를 굴리며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활을 당겨 쏘는데 마치 암사자가 양을 찢듯이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전 같으면 내 들 한편에 핀 꽃 한 송이도 누가 꺾었다가는 야단을 맞겠지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내 집의 금고 속에 있던 것을 원수들이 모두 가져가고 내가 키우던 소를 내 눈 앞에서 잡아 먹어도 고기 한 조각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서 말라서 침을 흘리며 굶어야 되는 것이 패잔국의 서러운 일입니다.

② 유다를 패하게 하십니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라...”는 바다 물결이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처럼 모든 백성은 망한 것이 가까워서 부르짖으며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후한과 고난이 있고...”란 전쟁에 망한 유다 백성이 앞을 보니까 화랑이 보이게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나 늙은 사람에게나 전쟁의 희망이 없습니다. 한해에 앞이 보이겠는데 절망뿐이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제 고성과 한대를 뚫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심하여 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권면을 새겨 듣고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코웃음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사랑하여 살충제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 주어 포도나무가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라서 열매를 맺는 줄로 알고 교만하게 된 포도나무는 그만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나무를 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조금 맺은 포도는 지나가던 개구장자들이 모두 따 가고 열흘,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열에서 자란 질려덩굴이 덮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만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 구실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교회는 추락장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발에 밟혀서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라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열 번 잘못을 제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메레미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면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앞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경성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I WILL NOT LET YOU GO

(Genesis 32:26, 29)

Jacob was born as the youngest twin to Isaac and Rebekah. Because he came out grabbing his brother's heel, he was named Jacob. He and his brother were distinguished by certain physical and personality attributes. Esau had an abundance of body hair and was a skillful hunter. Jacob was a quiet man and remained among the tents, unlike Esau who liked the open country. Isaac favored Esau and and Rebekah loved Jacob.

On the occasion when Esau was very hungry and Jacob had food prepared,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by selling it to Jacob for his food. Jacob, in return, stole his brother's blessing by tricking his father into thinking he was Esau. This caused a major disturbance between the brothers. Esau wanted to kill Jacob, so Rebekah asked her husband to send him to his uncle's house to find a wife.

Consequently, Jacob ran away. On the way to his uncle's house, he stopped for the night at a place called Luz. The Lord spoke to him in a dream saying,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en. 28:15). The next morning, Jacob named this special place Bethel. He also made a vow with God to give one tenth of everything God gave him back to God.

Jacob worked seven years for his uncle to acquire his first wife, Leah, who he was tricked into marrying. He worked another seven years for his second wife, Rachel, who he originally wanted to marry and loved more than Leah. On top of that, he worked six more years to establish his own flock of animals. After twenty years of really hard work and much prosperity, his uncles' sons were talking against him and his uncle's attitude towards him had changed.

It was at this time Jacob decided to flee his uncle's country and return to his own. Along the way, the angel of God met him and Jacob decided that this was God's camp and settled his family in preparation to meet his brother. He greatly feared meeting his brother and divided his camp into two sections. If Esau attacked, Jacob thought that at least one group would have a chance at escape. In great fear and distress, Jacob prayed to God for protection. He mentions in his prayer, "I am unworthy of all the kindness and faithfulness you have shown your servant" (Gen. 32:10). Jacob finally began to understand his need for God.

Jacob then prepared elaborate gifts from his possessions to give to his brother. He sent the gifts ahead with his servants as a means to pacify his brother's anger. The night before meeting his brother, Jacob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29)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은 신체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으며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들판을 좋아했던 형과는 달리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몹시 시장하여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그의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제들 간에 큰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리브가는 남편에게 야곱을 그의 삼촌 집에 보내 결혼을 시키자고 종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삼촌댁을 찾아가는 도중, 그는 루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꿈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이 특별한 장소를 벰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십 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 그의 첫 아내인 레아를 얻기 위해 칠 년을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가 원래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하였던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도 육 년간을 더 일했습니다. 이십 년의 고된 세월 후에 그의 삼촌의 아들들은 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기 시작하였고 삼촌 역시 그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자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의 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형을 만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만일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최소한 한 떼는 피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중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창 32:10)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위하여 소유물 중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종들을 선물과 함께 앞서 보내면서 형의 분노를 달래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시내 저편으로 건너 보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sent his family and the rest of his possessions across the stream. He was left alone and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wrestled with God.

"He struggled with the angel and overcame him; he wept and begged for his favor. He found him at Bethel and talked with him there" (Hosea 12:4). He pleade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vs. 26). Jacob realized that he was in serious trouble. He understood that God had not blessed him. He had everything - a huge family, money, numerous animals and tons of material possessions. Yet with all his worldly belongings, Jacob knew he had nothing without God's blessing. He needed God. And so, he cried out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It was at this time that God asked Jacob what his name was. Jacob answered and God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Gen. 32:28). All his life his name carried with it a terrible meaning. He was a deceiver and his life reflected it. Now, in his humble state of mind and because of his perseverance, God changed his name to 'Israel'. A very special name - a name given by God for His chosen people!

Jacob asked God for His name and God asked Jacob, 'Why do you ask my name?' 'Then He blessed him there' (vs. 29). God blessed Jacob. Jacob saw God face to face and his life was spared, not only that but through his heart's desire he received God's blessing. Israel was a new man. Changed by grace through his struggle and perseverance. No longer the deceiver, but now he was at the center of God's plan for the future of all Israel and indeed all of mankind.

The very next day, Jacob met his beloved brother. Remember this was the brother who vowed to kill him, whose life goal was to revenge his stolen blessing. Yet Esau received Jacob favorably. This most assuredly was a blessing only God could bring about.

God h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Jacob and Esau. God blessed Jacob with a special new name - 'Israel!' Jacob's entire life, his whole environment changed because of God's blessing. **Jacob knew not to let go until he received God's blessing.**

Today, we Christians also face many struggles in our lives. Unfortunately, many of us don't share the same heart felt attitude of Jacob. We don't realize our need, we are not willing to struggle and we give up too easy.

Jacob could have been satisfied with his earlier encounter with God. He had already been told that God would be with him. He had received material blessings and had fathered a large family. For all appearances, he was set. How many of us would have been satisfied with this? Jacob wasn't satisfied. He knew he needed God to bless him, he cried out to Go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We too have the opportunity to overcome life's struggles through Christ and have our name changed a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As a child of God, do we really cry out to our Lord for His blessing? Will we hold on despite all? Will we persevere throughout the struggle?

Jacob refused to let go until he received God's blessing and God blessed him right there and then. His heart knew the importance of God and he prevailed, obtaining power with God. Let's remember Israel and receive God's eternal blessing for us through Christ. Let's hold on to our faith, seeking God's blessing, until Christ's return.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호 12:4) 그는 간구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26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가족들, 엄청난 재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과 상당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야곱의 대답을 듣자 하나님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 32:28)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걸쳐 그의 이름 야곱은 누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그의 삶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겸손해짐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29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그는 생명을 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씨름과 인내를 통하여 은혜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미래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훔쳐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였던 형이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친근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전 생애와 그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주를 보내어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애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야곱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이미 받았으며 대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만족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복주시기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역경들을 극복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진정 그의 복주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매어 달리고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에서도 견디고자 하십니까?

야곱은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을 보내어 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결국 이기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십시오.

◆ 춘천소년원에 다녀와서 ◆

영혼을 건지는 열심으로

전 형 준

(복사, 중동1부, 12교구 지도)

미지의 세계로

97년 8월 4일, 춘천소년원 사역팀 35명은 춘천으로 향했다. 그곳은 소년원이라는 이름을 사용치 않고, 신춘중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원생들을 배려하여 얼마전 바꾼 기관명이었다. 그곳에는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14세~20세 정도의 청소년들이 수감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각각 강도, 절도, 폭력, 성폭행 등 온갖 죄명을 갖고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나는 전혀 문화가 다른 미지의 세계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들의 세계로 향했다. 오 하나님! 영혼을 건지게 하옵소서.

달한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

그곳에는 270명의 소년원 학생들과 40여명의 미결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 중 미결수 학생들은 박노철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나는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특강과 오후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4박 5일 동안의 일정이었다. 개회예배에서 '겨자씨의 비유'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귀와 마음이 전혀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저녁예배에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학생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듯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자들은 우리 교사들뿐이었다. 기도하는 것이 생소하기도 했고, 아직 닫혀진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우리들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들의 심령은 매우 강박한 상태에 있었고,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도록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영혼들

우리는 이들의 닫혀진 심령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사람의 설득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청하는 '기도'였다. 이에 따라 우리팀은 첫날밤 새벽 1시가 넘



도록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또 다음날도 새벽의 기도로 시작했고, 그날 저녁은 금식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놀랍게도 바로 그날 저녁 집회시간에 학생들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라고 외치며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눈물의 탄성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집회실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로 변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도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 거리던 학생들이 입술을 열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

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사단의 역사로 강박해진 마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었다. 사단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자였다.

셋째날 집회부터 원생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정계의 눈빛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날 밤 원생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과 콧물이 뒤통에서 뚩새, 통회의 기도를 드리며, 새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였다. 죽어가던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었

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우리들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

그날 저녁은 금식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놀랍게도 바로 그날 저녁 집회시간에 학생들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라고 외치며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닌가! 세례 분담을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조직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문답에 응한 학생들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예"라고 대답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찾아온 영혼이 181명. 세례예식 중 돌아온 마지막 2명을 추가해 도합 183명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2의 탄생'을 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세례받은 자 중 40여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헌신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지신 것이다.

후방군의 지원

긴장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중, 이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손길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정우 장로님이 방문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과일을 선사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12교구장 김천재 장로님이 보내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방문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리고 충현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 지원으로, 지칠 때마다 세 힘을 얻곤 했다. 고마운 것은, 동역했던 35명의 교사들이 80% 이상 보리로 만든 진짜 콩보리 밥에 전곡(?)을 불평 없이 먹으며 감당해 주었다는 것이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이 없었다면, 어찌 감당할 수 있었으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한다.

학 원전도회는 현직 초, 중, 고 교사 및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학원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모임이다. 이를 위해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련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성훈련에 집중하고, 학교별 전도 사례 발표, 부흥회 등을 통하여 영적 계층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금번 여름 수련회는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이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1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충현기독교원에서 가졌다.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의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자는 못했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다교회에서 오신 교사들과 더불어 예정대로 잘 시작할 수 있었다.

첫 시간은 교사들 각자의 별명을 그림으로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홍당무, 도깨비 팡팡이, 호랑이, 등대리, 거북이, 옥수수, 페스 해라, 악숙이, 금덩이 등등 기괴묘한 별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쾌한 시간으로 모두 배꼽을 잡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첫날 저녁집회에서 김필수 목사님은 마10:45의 말씀을 통해 '겉 거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잔잔하면서 호소력있는 말씀에 감동받은 우리들은 방으로 돌아와서도 기도회를 가

※ 학원전도회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인재 양육 위해 새로운 변화 다짐

민 순 기

(제5교구)

졌다. 특강을 겸한 전성일 교수(상계백병원 신경정신과)께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제'를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해 주셨다. 둘째날 저녁은 파침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었던 관계로 함께 동참하였는데, 이때 산기도를 하지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모두 동참하고자 뒷산으로 올라가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였다. 모기가 잠잠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모기약을 뿌려 주셨던 마리아 집사님의 사랑에 몽롱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의 특강은 박용화 목사님이 전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아는 교사'였다. 끝내 우리들의 마음에 큰 은혜로 임한 강연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한

사람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자신들을 통해 이웃과 편죽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열꾼들이 배출되기

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사인 우리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다.

학원전도회 모임

- 언제 : 매월 둘째주 3부예배 후(12:30)
- 어디서 : 본당 지하1층 왼쪽 끝 전도회실
- * 현직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취재수첩

청년부 여름사역 보고대회 갖고 마무리

지난 8월 31일(주일) 청년1부에서는 이번 여름 동안 실시한 낙도, 오지의 11곳의 15개 팀과 해외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는 간증과 슬라이드, 찬양 등을 통해 사역 당시의 생생한 모습들을 전했다.

이번 사역을 통해 한층 성숙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사역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청년들의 계속되는 선교 열정과 헌신에 파이팅!



정기 감사 오늘까지 연장

8월 31일까지 실시기로 한 97년도 하반기 정기감사가 지난 주일 거행된

성찬식 관계로 오늘(9월 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된다. 그동안 감사를 받지 못한 부서에서는 오늘중으로 반드시 감사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곳에서는 ...

▶ 고등부에서는 21세기의 주역이며 미래의 지도자가 될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기도회를 오는 9월 10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배다니홀에서 실시키로 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사랑부에서는 차량담당 교사를 모집한다. 소형승합차(12~15인승) 소유자로 주일에 등교(오전 8시~10시 30분) 및 하교(오후 12시 30분~3시)를 위해 봉사할 성도는 누구나 환영이다. 이들의 섬김에 주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갚으시길 ...

▶ 요한전도회5지회와 베드로전도회5지회가 연합으로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일원동 수도공고에서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직원(비서)모집

1. 자격
 - 1) 세례를 받은 자
 - 2) 정규대학(비서학과) 졸업자
 - 3) 영어 해독이 가능한 자
 - 4)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근무직

여비서직 0명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전 포함)
주민등록등본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교환 402)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1997년 9월 7일 : 8교구
1997년 9월 14일 : 9교구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해외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터키

6500만 인구에 500명의 그리스도인!

“야유와 비웃음 속에서도 성령계신 역사하셨다”

유명숙

(충동2부 교사)

금년 1월 어느 세미나에서 터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다. 인구 6500만, 선교사 500명, 그리고 그리스도인 500명! 평균적으로 볼 때, 선교사 한 분이 평생 사역해서 겨우 한 명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땅. 한 터키인 영혼을 건지기 위해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한 영국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 이러한 사실들이 나로 하여금 터키를 향하게 하였다. 가기로 한 17명 전원이 터키행 비행기에 오르는 감격속에 우리는 그 먼 땅을 향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시야를 압도한 것은 웅장한 모스크(이슬람 사원)들이었다. 새벽에는 모스크에서 울려나오는 이슬람 기도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

인구 1200만의 이스탄불에는 정부가 인가한 기독교회 13개가 있다. 우리는 그 중 하나, 김원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제이틴부르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터키 단기선교를 시작하였다. 예배 중, 우리 팀원들이 준비한 ‘해방’이라는 무언극을 공연했는데, 공연 후, 터키인 형제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할렐루야!

터키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도를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 가면서 ‘보아짓 해협’의 배 위에서, 또 공원에서 글있는 그림책을 사용해 복음의 씨를 뿌렸다. 씨가 뿌려졌으니 주께서 거두시리라. 사실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더해 준 한 터키 형제가 있었다. 육설이라는 형제였는데, 그는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구타를 당한 경험까지 있었으나, ‘궁극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자기 성경책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면서 전도하는 담대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감옥에 가면 가리라’고 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후 야간열차에 몸을 싣고 불가리아땅에 있는 터키촌 교회들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역시 드라마 공연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장면이 펼쳐지자 한 아주머니는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기도 했다. 드라마 공연자나 보는 이들에게 거의 눈물로 드러진 애매가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가난한 노년교도들, 교육받지 못한 거의 문맹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예쁘게 생긴 어린이들, 씨앗을 구할 돈이 없어 개간되지 못한 황량한 넓은 땅들, 가난한 육신, 가난한 영혼들이 널려 있었다. 반면 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선교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자립의 기반이 있었다.

우리는 송구스럽게도 복음을 전하던 중 겪게 되는 고난의 영광도 경험하였다. 페스테라교회에서의 드라마 공연시에 동네의 모슬렘 주민들로부터 야유와 비웃음을 받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못한 아주머니가 예수님의 영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고백했던 것이다.

불가리아에서 터키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고속버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이탈하여 한 동네 골목길을 향했다. 모두들 당황했다. 알고 보니 한 터키 여인을 내려주기 위해 고속버스가 동네 골목길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우리는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조금 부아가 나기도 했다. 한 시간 반이나 더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선교사님은 조금의 항의도 없이 묵묵히 그 여인의 이삿짐 나르는 일을 도와 주고 계셨다.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흘렀다.

감사드릴 일들이 참 많다. 나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간 내내 좋은 날씨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 또 우리 팀원 중 선교사로 헌신된 여러 자매들로 인해 감사하고, 유달리 몸이 약한 나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신 것도 참 감사하다.

“주님, 터키와 불가리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원호 선교사님과 여러 다른 선교사님들, 현지인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끝날까지 굳게 서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충현게시판

새벽기도회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교회 새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의 찬송과 순전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드림께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질 때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 시간 : 매일 새벽 4시 40분

• 장소 : 본당

금요집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찬송과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충현의 온 가족이 대가족 찬양대가 됩니다. 찬양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목사·장로·찬양단, 청년·대학생들의 찬양, 호산나찬양대 등 찬양의 온사를 받으신 다양한 모임과 개인들의 연주가 주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펼쳐집니다. 친근히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이 은총의 잔치에 충현의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 본당

젊은이를 위한 5부예배

충현의 젊은이들에게 온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매주일 오후 3시에 드리는 5부예배를 통하여 청년·대학생들이 말씀으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잠재력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충현의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교회에 힘을 불어넣는 통로로,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 시간 : 매주일 오후 3시

• 장소 : 본당

동서울노회제52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고시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장로고시청원 ③ 강도사 인허 및 고시청원 ④ 전도사 고시청원
⑤ 목사 후보생 고시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⑥ 신학 계속 추천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 1997년 9월 24일(수)까지
- 접수 및 문의 : 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환 402, 563-2339)